

“문화·자동차 등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똑똑한 산업 키워야”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과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일보 등이 후원한 제3회 필사이언스 포럼이 지난 1일 광주과학관 1층 상상홀에서 '제4차 산업혁명, 또 다른 시작이다'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과학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은 2015~2016년이 기술 대폭발 시기로 진정한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한경쟁 속에서 각 나라와 기업들은 자체혁신 역량과 의지에 따라 승·패가 확연히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 등 기술이 사람·사물·공간을 연결하면서 산업구조 사회시스템에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선진국들은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 기반의 신기술 융합 촉진과 제조업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11년 제조업 혁신 전략 ‘인더스트리 4.0’, 미국 2013년 ‘스마트메리카



지난 1일 제4회 필사이언스 포럼에서 토론을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소프트웨어 산업은 사람이 중요한 만큼 산업인재 영입과 지역인재의 양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광주전남은 문화콘텐츠 혁신도시로 상상력이 뛰어난 인재만 있다면, 기반시설 없이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토론자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광주·전남지역이 우리나라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오 연구원은 “우리 지역은 광주R&D특구, 빛가람혁신도시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토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중심거점 최적지임을 부각해 투자를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 자동차산업벨트와 영광 전기자동차, 영암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자체 혁신 역량따라 성패 中企 성장환경 조성해야”

챌린지’, 중국 2015년 ‘중국 제조업 2025’ 등을 선포한 뒤 세계 경제주도권 차지를 위해 경쟁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분야를 중점으로 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곽 원장은 “국내 주요 공단에 비해 건립과 투자비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수익에서는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정보통신·바이오·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장재형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실장)

“미래에너지, 효율화 관건 저장기술, 큰 시장 될 것”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형 광주과학기술원 차세대에너지연구실장은 “미래 에너지 산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청정 에너지 개발과 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 생산·분배 효율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에너지산업은 prosumer(생산자이자 소비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저장기술이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찬훈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전남본부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사물인터

신찬훈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장)

“사물인터넷 선진국 주도 기술예속국 돼선 안돼”

넷·3D프린팅 등은 이미 선진국들이 선점해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의 기술예속국이 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 본부장은 또 일자리 문제에 대해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택배시스템, 인공지능 증권관리사 등이 등장하면서 택시와 택배인력 등 일자리 감소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의 혁명이 불러올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비책 강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식 (한국ICT협동조합 이사장)

“아이디어가 가치 창출 인재 영입·양성 급하다”

김창식 한국ICT협동조합 이사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단순제조업은 부가가치 창출이 힘든데다, 소프트웨어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라는 분석이다. 지역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점적으로 성장시켜야 하고, 광주·전남 주력사업인 자동차산업도 단순 제조가 아닌, 디자인·설계분야의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병기 (광주·전남 책임연구원)

“자동차산업벨트 구축 시너지 극대화 필요”

자동차 부품 고급브랜드화로 이어지는 첨단 자동차산업벨트를 구축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농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문화·예술콘텐츠 산업과 첨단 의료융합 산업을 발전시킬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인공지능이 접목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서비스산업 발전에 따른 고용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미래부, 슈퍼컴 개발 착수... 10년간 1000억 투자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등 첨단 기술 구현을 뒷받침할 슈퍼컴퓨터가 국내 역량으로 독자개발된다. 이를 위해 10년간 1000억원 이상 투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AI와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촉발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자체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슈퍼컴퓨터 개발 프로젝트다.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이란 보통의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운, 대용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저장·처리·활용하는 컴퓨팅 기술을 말한다.

미래부는 개발 프로젝트를 2단계로 나눠 올해부터 2020년까지 1PF(페타플롭) 이상 슈퍼컴퓨터를 개발, 2021~2025년에는 30PF 이상 슈퍼컴퓨터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PF는 초당 1천조(10의 15제곱) 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이 가능

한 처리 속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슈퍼컴퓨터를 개발해본 경험은 0.1PF 이하이고 재난·환경 분야 공공부문의 슈퍼컴퓨터 실수요가 1PF 내외 수준이다. 새로 개발되는 슈퍼컴퓨터는 기존 상용제품의 약 4분의 1 수준(80kW/1PF 이하)의 전력을 소모하고 컴퓨터 간 연결을 통해 5~10PF 이상 규모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미래부는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해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초고성능 컴퓨팅(HPC) 사업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사업단은 국내외 개발 경험과 비법을 보유한 다양한 개발주체(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져 이 분야의 국내 역량을 총집결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달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야외에서 웃고 있는 사람 3명”

페이스북, 사진 읽어주는 기술 도입

페이스북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로 사진의 내용을 판별해 읽어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5일(현지시간) ‘자동 대체 텍스트’(automatic alternative text·AAT)로 이름 붙인 이 기능을 적용했다.

스크린 리더를 켜고 화면을 스크롤 하면 예를 들어 “야외에서 웃고 있는 사람 세 명”, “두 사람이 미소짓고 있음, 선글라스, 하늘, 야외, 물”, “피자, 음식” 등 음성으로 설명을 듣고 사진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은 일단 애플 iOS용 영어 서비스부터 AAT를 도입, 앞으로 안드로이드 등 다른 플랫폼들과 다른 언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LG ‘G5’ 흥행 맞불... 삼성 ‘갤럭시S6’ 출고가 인하

국내 이동통신 3사가 6일 삼성전자 갤럭시S6 출고가를 일제히 인하했다. LG전자 G5가 출시 초반 흥행에 성공하자 삼성과 LG 간 가격경쟁이 벌어진 모습이다.

이날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S6 출고가를 10만원 가량 인하했다. 32GB 모델은 77만9900원에서 67만9800원으로, 64GB 모델은 79만9700원에서 69만9600원으로 각각 출고가를 낮췄다.

SKT는 갤럭시S6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월 5만9000원 데이터 요금제로 개통할 때 공시지원금 21만6000원에서 27만1000원으로, 월 2만9000원 데이터 요금제로 개통할 때 9만8000원에서 18만4000원으로 대폭 높였다.

월 8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 시 공시지원금은 30만원 그대로 유지했다. 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삼성 ‘갤럭시S6’

이번 출고가 인하와 지원금 인상은 G5의 인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G5가 기대 이상의 인기를 끌자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들을 통해 구모델 갤럭시S6로 가격경쟁에 나섰다.

앞서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0월8일 LG V10 출시에 맞춰 갤럭시S6 출고가를 한 차례 인하한 바 있다. 중저가 모델인 32GB 모델이 85만8000원, 64GB 모델이 92만4000원이었다. /연합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 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윤택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믿음이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